

科總 第13回 定期總會 盛了

第 5代 會長에 閔寬植박사 推戴

78年度 事業計劃 原案通過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지난 2월 28일 科學技術會館 講堂에서 1978년도 定期總會(第13回)를 열고 新任會長에 閔寬植박사를 選出했다.

代議員 82명과 科學기술계인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총회는 金允基 會長的 開會辭로 시작되었다.

金會長은 開會辭를 통해 먼저 科總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할수 있었던 것은 『정부당국의 각별한 지원과 산학협동재단, 蓮庵文化財團의 협조와 회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거둔 結實』이라고 치하한 후 科總 12년간의 역사를 회고했다.

科總이 初期에 71개 학회 단체로 出發하여 오늘에는 138개 학회 단체로 擁하는 聯合會로 성장, 그동안 『정부의 지원과 산업경제계의 협조로 학술활동 조성 및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科學기술단체들의 유대를 일층 강화하여 總和를 이루는데 적으나마 기여했으며 이것이 곧 科學技術力을 集約하는 捷徑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 예로써 科學技術會館의 건립, 科學의 날, 科學技術賞 제정, 國內外 韓國科學技術者 綜合學術大會 실시 科學기술용어집 발간배포, 새마을기술봉사단 활동 등을 들고 특히 새마을 기술봉사단의 활동은 정부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金會長은 또 수출 100弗억 조기달성에 科學기술인들의 분야별 공헌이 컸음을 전제, 『1991년에 1천억불을 수출하고 국민 1인당 소득 7천 7백불 목표를 달성하여 온 국민이 복지를 누리게 되려

면 앞으로 더욱 科學기술계가 당면한 국가적인 사명과 科學기술혁신으로 현안문제 해결에 기수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科學기술인에게 부과된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總會는 會順에 따라 姜信澤事務總長의 77년도 實績報告와 決算報告가 있었고 趙誠虎監事의 監查報告가 있었는데 참석대의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77년도 事業報告와 決算報告를 承認접수시켰다.

그리고 78년도 事業目標로

1. 科學기술기반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과학과 기술」지를 발간하며
2. 기술자립을 지향한 산업기술의 개발을위해 V.T.R.을 통한 수출산업 육성, 국내의 한국 科學기술자 종합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3. 科學풍토조성과 국민생활 과학화에 기여코자 科學기술용어사전편찬, 새마을기술봉사단의 적극활용등 事業計劃을 原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總會의 마지막 안건인 임원개선에 따른 會長選出은 임시의장으로 뽑힌 金東一顧問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李昌九 代議員의 제의로 임시의장과 임시의장이 뽑은 분야별 전형위원이 會長을 추천하여 總會에서 可否를 결정하는 選出方法을 채택했다. 대의원전원은 만장일치로 임시의장과 전형위원이 추천한 閔寬植박사를 新任會長으로 選任하고 기타 임원진은 會長에게 일임시켰다.